

폭발음 '펑펑'...뿔조각 등 파편 날아들어

광양제철 폭발사고...지역민 불안

발전설비 내부서 두차례 터져
근로자 5명 중경상
이순신 대교 한때 통제
용접 중 폭발에 화재·정전 등
올해 사고 잇따라 대책 시급



24일 오후 1시 15분께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불과 수개월 전 화재·정전사고가 닳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 광양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24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이순신 대교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이 영상에는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하늘로 수백m를 치솟은 뒤,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직경 1m 크기의 둥근 뿔조각이 이순신 대교 철제 난간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험천만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순신 대교에서 사고 장면을 지켜본 한 운전자는 "마치 로켓포가 발사되는 듯 하늘 높이 둥근 모양의 물체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배열 발전 축열설비 시험 운행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양제철소가 포함된 광양산단내 화재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포스코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밸브 교체용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변전소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해 제철소 내 코크스(석탄) 공장 등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잔류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배관 안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었다. 이 불로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광양 시내를 뒤덮는 바람에 광양

시민 중 일부는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와 함께 광양산단 인근에 있는 석유화학산업 밀집단지인 여수산단도 매년 화재 및 가스 누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산단에선 지난 23일 오전에도 단지 내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부위에서 불이 났다.

앞서 2016년 6월 17일 여수산단에 입주한 한 대기업 공장에서 열 교환기 청소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이 끊어진 고압 호스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해 5월 27일에도 여수산단 한 화학공장 플랜트 보호 건물에서 협력사 직원이 동료 3명과 작업 중 새어나온 포스겐 가스에 노출, 병원 치료 2주 만에 목숨을 잃었다.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선 노후한 광양산단과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광양산단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6건,

경찰, 폭발사고 조사 착수... 오늘 국과수와 합동 감식

광양경찰은 24일 "과학수사대 등 수사 인원을 폭발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로 보내 현장용 통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포스코 시험연구소 연구원과 기술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한

2017년 8건, 2018년 5건, 올 11월 기준 4건이다. 이번 화재사고를 포함하면 5년 간 27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여수지청은 시험 운행 당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재해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를 시험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합동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주먹 휘두른 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0

분에 종료, 15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이뤄졌다.

정읍소방서 소속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

했다.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B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심전도 검사, 혈압·맥박 검사 등 생체징후 측정 결과 B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이송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분개한 B씨가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A씨는 주치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B씨를 밀치며 제압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

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A씨는 B씨의 뒤편으로 가 두 손으로 목을 감싸고 넘어뜨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씨 어머니는 '소방관이 아들의 발목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는 소방관의 바다겐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누르는 등 방어하는 선을 넘어 과도한 공격 행위를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A씨 행위와 B씨 골절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음=박기섭 기자 parkks@

광주 모텔 방화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치료 받던 부상자 1명 숨져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몰지마 모텔 방화 사건' <광주일보 2019년 12월 23일자 6면>의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모텔 방화 사건 부상자 A(47)씨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 방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연기를 다량 흡입

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저온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사흘째인 24일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화재 당일 숨진 2명에 이은 세 번째 사망자로, 투숙객 49명 중 현재 3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이차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39)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짜 교통사고' 보험사기 연인 검거

12회 걸쳐 1000만원 챙겨

광주경찰은 24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천만원대 보험금을 받아챘던 A(26)씨와 B(여·21)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사고가 없었는데도, A씨가 운전한 차에 B씨가 치였다고 사고를

접수해 12회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총 1058만원을 받아챘던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연인관계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아낸 보험금은 식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조사에 불응한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수노조 가입한 신입직원 '유니언숍' 근거 해고 불가'

대법원 판결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니언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니언숍이란 지배적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노조 미가입자, 탈퇴자, 제명자 등을 회사가 해고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3월 B노조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유니언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2월 또 다른 C노조가 설치됐고 그해 6월 입사한 이모 씨 등 버스 기사 3명은 유니언숍 협정이 맺어진 B노조가 아닌 C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이들을 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에 따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불량 전기장판 바꿔줘" 행정복지센터 불 지르려 한 50대



○-불량 전기장판을 제공했다며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서행.

○-24일 광주남부경찰과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모(51)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성을 지르며 2ℓ 짜리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 100ml 가량을 바닥과 의자,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

내 방화를 시도했다는 것.

○-정씨는 범행에 앞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올 겨울 제공한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기발출과 함께 다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복지담당 직원이 수량부족을 이유로 추후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이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계획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Auction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대 지** 광주 북구 중흥동 701-7 토지 : 235㎡(71.1평) **감정가 4억1천1백2십5만원, 최저가 4억1천1백2십5만원**
- 주 택** 광주 동구 계림동 570-6 토지 : 218㎡(65.9평) 건물 : 80.39㎡(24.3평) **감정가 2억4천1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